

남명 조식의 상소문, 언로言路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다



신병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

필자 소개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및 동대학원 박사 졸업 (문학박사)
- 서울대학교 규장각학에 연구사
- 조선시대사학회 편집위원, 연구이사
- 남명학연구원 상임연구 위원
- 외교통상부 외규장각도서 자문보림위원
- KBS, EBS 역사프로그램 자문

주요 저서

- 『왕과 아들』
- 『조선후기를 움직인 사건들』
- 『왕실의 혼례식 풍경』
- 『전통명품의 보고 규장각』
- 『조선평전』 외 다수

1. 정국을 요동치게 한 상소문

1555년(명종 10) 조정에 올라온 한 장의 상소문은 명종대의 정국을 요동치게 했다. 상소문의 주인공은 남명 조식(曹植:1501~1572)으로, 퇴계 이황과 함께 영남학파의 양대 산맥으로 지칭되었던 인물이었다. 평생 관직을 사양하고 스스로 처사(處士)로 불리기를 원했던 선비학자 조식은 1555년 조정에서 제안한 단성현감을 사직하면서 당시의 정치 현실을 비판한 상소문을 올렸다. 어떤 내용이었기에 이처럼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을까?

상소문의 핵심 내용은 왕 명종(明宗:1534~1567)이 정치를 잘못하여 나라의 근본이 망했고 민심이 이반되었다는 것이었다. 첫 부분에서 “전하의 나라 일이 이미 잘못되어서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했고 하늘의 뜻이 가버렸으며 인심도 이미 떠났습니다. 비유하면 큰 나무가 백 년 동안 벌레가 속을 먹어 잔액이 이미 말라 버렸는데 회오리바람과 사나운 비가 어느 때에 닥쳐올지 까마득하게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이 지경에 이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라고 지적한 것에서 이러한 입장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가 잘못된 원인을 문정왕후의 수렴청정(垂簾聽政)에서 찾고 있다. “자전(慈殿: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께서는 생각이 깊으시기는 하나 깊은 궁중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께서는 어리시어 다만 선왕의 외로운 후계자(孤嗣)이실 뿐이니, 천 가지 백 가지의 천재(天災)와 억만 갈래의 인심을 무엇으로 감당하며 무엇으로 수습하시겠습니까?”라고 한 데서 보듯이, 조식은 문정왕후를 부정적인 정치의 몸통으로 보았다. 사실 문정왕후는 1544년 11세의 어린 아들 명종이 즉위한 후 수렴청정을 하면서 윤원형 등 외척 세력을 대거 끌어들었다. 이에 따라 왕을 정점으로 하는 정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정치가 소수의 외척 세력에게 집중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이 떠안게 되는 형국이 되었다.

조식은 이런 현실에서 선비가 서야 할 길은 비판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여겼다. 왕에게 불경한 표현이 될지언정 현실을 바로 지적해주는 것이 선비의 몫이라 판단하면서 직선적인 상소문을 올린 것이었다. 조식이 올린 상소문으로 조정은 발각 뒤집혔다. 특히 문정왕후를 과부로, 명종을 고아로 표현한 대목은 명종에 의해서도 ‘군상불경죄(君上不敬罪)’로 논의될 만큼 조정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문정왕후에 대한 불만이 벽서(壁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있었지만, 조식처럼 직선적인 언어로 비판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군주에게 불경을 범했다’는 이유로 조식을 처벌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신이나 사관들은 ‘조식이 초야에 묻힌 선비여서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지 그 우국충정은 높이 살만하다’거나, ‘조식에게 죄를 주면 언로가 막힌다.’는 논리로 조식을 적극 변호함으로써 파문은 가라앉을 수 있었다.

2. 조식은 누구인가?

조식은 무엇보다 학문에 있어서 수양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경(敬)과 의(義)는 바로 남명 사상의 핵심이다. 남명은 ‘경’을 통한 수양을 바탕으로, 외부의 모순에 대해 과감하게 실천하는 개념인 ‘의’를 신념화하였다. 경의 상징으로 성성자(惺惺子:항상 깨어있음)라는 방울을, 의의 상징으로는 칼을 찾으며, 칼에는 ‘내명자경 외단자(內明者敬 外斷者義)안으로 자신을 밝히는 것은 경이요 밖으로 과감히 결단하는 것은 의이다’라고 새겨 놓았다. 방울과 칼을 찬 선비 학자. 언뜻 연상되기 힘든 캐릭터이지만, 조식은 이러한 모습을 실천해 나갔다. 조정에 잘못이 있을 때마다 상소문을 통해 과감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왜구의 침략에 대비하여 후학들에게는 강경한 대왜관(對倭觀)을 심어 주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정인홍, 객재우, 김면, 조종도 등 남명 문하에서 최다 의병장이 배출된 것도 남명의 가르침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식이 스스로에 엄격했음은 ‘육천(浴川)’이라는 시에서도 나타난다. “그래도 티끌 먼지가 오장(五臟)에 남았거든 바로 배를 갈라 흐르는 물에



보내리라”는 시구에서 보이듯, 유학자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과격한 표현을 썼으며, 이는 그만큼 자신을 다잡는 강한 의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18세기의 실학자 이익은 조식과 이황을 영남파의 양대 산맥으로 인정하면서, ‘이황의 학문이 바다처럼 넓다면 조식의 기질은 태산처럼 높다’고 함축적으로 대비시켰다. 조식의 의(義)는 상벌에 엄격한 무인의 기질에도 어울리며, 그가 차고 다녔던 ‘칼’의 이미지와도 맥을 같이한다. 조식의 칼은 안으로는 자신에 대한 수양과 극기로, 밖으로는 외적에 대한 대처와 조정의 관료들에게 향해져 있었다. 칼로 상징되는 그의 이미지는 수양을 바탕으로 과감히 현실 부조리와 모순을 극복해 가는 실천적인 선비 학자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조식의 상소문 또한 이러한 적극적인 실천 행위의 하나로 표출되었다.

3. 보호받은 조식의 언론

조식의 상소문 파동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16세기 언론과 사관들의 언론 보호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었다. 조식의 상소문에 대하여 당시 조정에 포진했던 대신들이나 언관들은 조식을 적극 변호하였고, 궁극에는 명종의 불편한 심기를 완화시켜 조식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사관(史官)들은 ‘조식이 선비로서 초야에 묻혀 있는데 벼슬과 녹봉을 보기를 뜯 구름 같이 하면서도 오히려 왕을 잊음이 없으니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이 절실하다. 언사(言辭)를 함에 강직하여 피함이 없으니 가히 이름을 헛되이 얻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조식의 언론이 결국에는 왕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명종에 의해 조식에 대한 죄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을 때도 ‘조식에게 죄를 준다면 언로가 막힘이 더욱 심해져서 왕의 덕에 누가 된다.’고 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였다. 16세기 중종대 이후 조선 사회는 공도론(公道論)으로 무장한 사람파들이 사관이나 언관직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양사기(養士氣: 선비의 기상을 양성함), ‘납언론(納言論: 언론을 받아들임)’의 분위기가 조정에 잘 조성되어 있었는데, 조식의 과감한 상소문이 큰 문제없이 일단락된 것은 조정의 언론 중시 분위기가 한몫을 하였다. 당시 언관이었던 정종영과 같은 인물은 ‘참으로 말이 자전게 미쳤다면 죄를 다스려도 될 것이나, 조식은 지방의 선비로서 성품이 거칠고 예모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라고 하여 시골 선비가 상황을 잘 몰라 과격한 언론을 한 것이라면서 변호를 한 후에, ‘옛날의 제왕은 초야에 물러나 숨어 있는 선비와 갑옷을 입은 무사는 특이하게 대우했습니다.’라고 하여 조식과 같은 직선적인 언론을 제시하는 재야 선비를 우대해야 함을 은연중 강조하였다. 명종은 언로를 개방하는 것이 아무리 옳다 하여도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불경함을 범한 것은 잘못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거듭 표시하였지만, 이번에는 성균관 유생들이 조식의 지원에 나섰다. 안사준 등 성균관 유생들 오백여 명이 상소문을 올려 ‘조식의 상소는 강직하고도 절실한 의론으로 정녕 나라를 걱정하는 성심에서 나온 것이며, 시무(時務)에 적응한 말이었다.’고 하면서 조식을 후원하였다. 이들은 ‘왕이 조식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 언로가 막히고 사림(士林)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하면서 언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정의 대신들과 언관, 성균관 유생들까지 나서며 조식에 대한 처벌은 언론 탄압으로까지 비화되었으며, 결국 명종은 조식에게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게 되었다. 조식의 상소문 파문은 조선의 언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조선 후기 현종대에는 우익정 김수항이 재야 선비 발언을 왕이 경청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조식이 올린 ‘자전은 과부이고 명종은 외로운 후계자’라는 표현을 명종이 받아들인 것을 거론하였으며, 영조대 한원진의 상소에서도 ‘옛날 처사 조식의 상소 가운데 과격한 말이 많았으나 명종께서 초야의 오만한 말이라 하여 죄를 주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조식이 1555년 단성현감을 사직하면서 올린 상소문은 선비의 언론을 왕이 수용해야 한다는 주요 근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말 한마디로 목숨을 날릴 수 있는 절대군주 앞에서 처사 조식은 당당하게 정치현실을 비판하였고 이것은 재야 선비 조식의 명성을 굳건히 해 주었다. 최고 권력층의 문제점을 직선적으로 지적한 재야 선비의 기개와 그것이 허용될 수 있었던 언론문화는 지금의 현실에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